

東友

【社是】

민족의 표현기관으로 자임함
민주주의를 지지함
문화주의를 제창함

2016년 6월 30일 목요일
제199호

발행인
김재호

편집위원

- 권해정(동아PDS)
- 김민지(동아E&D)
- 김석호(마케팅본부)
- 김영환(AD본부)
- 김중석(채널A 보도본부)
- 구희인(출판국)
- 박형순(동아에드넷)
- 빈정훈(동아MD)
- 안재혁(재경국)
- 양형모(스프츠동아)
- 유성열(편집국)
- 이정애(동아시아인스)
- 이종원(문화사업본부)
- 이태운(동아이지에듀)
- 정기상(동아닷컴)
- 정소림(경영지원국)
- 조현상(동아프린테크)
- 최한나(미래전략연구소)

(가나다순)

제작 : 경영총괄팀(구내 0635)

우리 일터가 좋아집니다 창의성을 꽃 피우세요

6월 중순 미국 뉴욕에서 기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채널A가 브랜드디자인 부문에서 세계적인 디자인상을 거머쥔 것입니다. 사우들의 창의성이 빛을 발한 결과입니다. 이번 호에선 해외 미디어 혁신 컨퍼런스를 다녀온 기자들의 현장 리포트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최고의 미디어 전략은 직원들의 창의성을 북돋는 것이라고 하네요. 조만간 사내 라운지와 휴게실 등 편의공간과 회의실이 늘어납니다. 새 단장한 일터에서 여러분의 창의성이 만발하길 기대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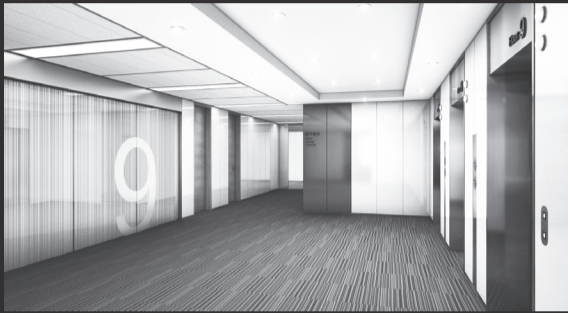
東亞日報

서울 중로구 청계천로 1 동아일보사

휴게용 라운지



엘리베이터 홀



사우들의 소통과 편안한 휴식을 위해 서울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에 신설되는 휴게용 라운지 'DNA 스페이스'(위), 세련된 분위기로 리모델링 되는 각 층 엘리베이터 앞 공간(아래). ※ 이 조감도는 추후 공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우리 일터
이렇게 바뀔니다



일할 맛 나는 세련된 일터 만든다

사원복지 향상 위한 근무환경 개선안 곧 시행 휴게용 라운지 신설... 엘리베이터 홀 새 단장 회의실 공간효율 높이고 실내흡연실 없애기로

서울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가 GWP(Great Work Place·일하기 좋은 직장)로 새롭게 거듭난다. 사우를 위한 휴게용 라운지와 다목적 회의실이 마련되고, 엘리베이터 홀은 세련된 공간으로 탈바꿈 한다. 사우들의 건강을 위해 실내 흡연실은 건물 밖으로 옮겨진다. 또 신문 방송 등 뉴스룸 부서들의 협업을 장려하고 업무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 간 사무실 위치도 일부 조정된다.

에너지 충전소 'DNA Space' 동아미디어센터에 새롭게 들어서는

라운지(가칭 'DNA Space')는 사우들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종합 휴게공간으로 꾸며진다. DNA는 'Dong-a & Channel A'의 이니셜인 동시에 'Dynamic Networking Attractive Space(역동적으로 소통하는 매력적 공간)'의 줄임말이다.

14층 또는 15층에 설치될 라운지는 사내 소모임은 물론 간단한 미팅, 취재원과 인터뷰, 외부 손님맞이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잠깐 눈을 붙일 수 있는 '가면실'과 안마기 등이 설치된 '건강실'도 라운지에 들어선다. 사우들

이 언제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재충전 공간이다.

엘리베이터 홀 리모델링

동아미디어센터 각 층 엘리베이터 앞 공간은 세련된 분위기로 리모델링 된다. 건물 전체에 통일된 동아미디어그룹 브랜드 이미지를 입히고, 사옥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다. 낡은 천장을 재시공하고, 벽면은 고급 강화유리로 교체할 예정이다. 카펫도 새로 바꾼다. 층 전체 공간 배치가 바뀌는 층의 엘리베이터 홀을 우선 단장하고, 나머지 층들의 엘리베이터 홀은 향후 순차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공간 활용도 높은 다목적 회의실

기존 9층 대회의실을 없애고, 대신 라운지 옆에 공간 활용도를 높인 다목적 회의실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명 '가변

형 회의실'로 회의 규모에 따라 회의실을 대·중·소형으로 변형할 수 있다.

층정로 사옥 9층에도 광화문 미디어센터 9층 회의실과 같은 크기의 회의실을 만든다. 세미나 같은 강의용 공간으로 층정로 사우들 뿐만 아니라 광화문 미디어센터 사우들도 이용할 수 있다.

'금연빌딩'으로... 흡연실은 외부로

광화문 미디어센터는 완전한 금연빌딩으로 거듭난다. 9층, 12층, 13층, 지하 2층에 있던 실내 흡연실이 모두 없어지고 그 자리에 사무실과 휴게공간, 업무용 창고 등이 들어선다. 일부가 사용하던 흡연실이 사우들 모두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사내 흡연실을 없애는 대신 동아미디어센터와 일민미술관 사이 공간에 실외 흡연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경영지원국 총무팀 정소림

세계가 인정한 채널A 방송디자인

60년 전통 美프로맥스BDA 디자인 어워즈 수상 심사단 "동적 디자인 통해 브랜드 강조" 극찬 ABC CNN 등 세계 유수 방송사와 어깨 나란히

채널A가 세계적인 방송디자인상인 '프로맥스BDA 디자인 어워즈(2016 PromaxBDA Promotion Marketing and Design Global Excellence Awards·왼쪽에 트로피 이미지)'를 수상했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통틀어 첫 번째 수상으로, 한국 방송사 가운데 최초로 '무빙 아이덴티티'를 적용해 만든 네트워크 브랜딩 기법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프로맥스BDA 디자인 어워즈'는 1956년 설립된 디자인, 방송, 홍보·마케팅 협회 '프로맥스BDA'가 수여하는 방송 디자인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65개국 1만여 개 방송사 및 홍보 회사 등이 이 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6월 16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채널A는 채널 이미지 캠페인 부문 동상을 거머쥐었다. 이로써 함께 수상한 ABC, CNN, 디즈니 등 해외 유수 미디어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국내 방송사 중에는 CJ E&M이



채널 홍보 영상 부문에서 수상했다.

채널A가 시청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는 무빙 아이덴티티는 특정한 움직임을 전체 디자인에 동일하게 적용해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 특정 움직임을 보면 채널A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도록 하는 선진적 브랜딩 기법이다.

오르도록 하는 선진적 브랜딩 기법이다.

채널A 무빙 아이덴티티는 가운데에서 양 옆으로 수평선이 열리고, 확장된 수평선이 다시 아래위로 열리며 캔버스 등이 만들어지는 형태다.

채널A 브랜드 디자인 제작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최윤상 경영전략실 브랜드 마케팅 PD는 "수평선처럼 무한히 확장되는 개방성과 세상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 캔버스를 통해 채널A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인 'Open & Creative'를 움직임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채널A 브랜드마케팅팀 이선정



'무빙 아이덴티티'를 적용한 채널A의 다양한 네트워크 브랜딩 영상 화면들.

‘채용연계형’ DNA 인턴 44명 7월부터 취재·제작 현장 누빈다

채용연계 1기 인턴 기자·PD 24명 중 12명 수습 입사

타 언론사 거쳐 ‘인턴 친정’에 경력 입사한 ‘연어형’도 많아

2016년 동아미디어그룹 채용연계형 DNA 8기 인턴 44명이 6월 29일 사흘간의 입문교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7월 4일부터 8월 중순까지 편집국, 보도본부, 제작본부 등에 배치돼 약 6주 동안 동아미디어그룹의 콘텐츠 제작현장을 누빈다.

최종 선발된 인턴들은 언론사 입사 준비생 사이에서 ‘실무중심 명품인턴’, ‘언론인 사관학교’로 불리는 동아미디어그룹 인턴 프로그램에 합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야 했다.

지원서 접수 단계부터 우수 지원자들이 대거 몰렸고,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필기시험과 면접평가에서는 결시자가 거의 나오지 않아 응시율이 100%에 육박했다. DNA 인턴 합격을 위해 재수, 삼수를 했거나, 필기시험과 면접 준비를 위해 별도의 공부 모임을 꾸린 지원자도 적지 않았다.

DNA 8기 인턴에 대한 지원자들의 뜨거운 관심은 지원서 접수를 시작하고 사흘 뒤 광화문 사옥에서 개최된 ‘인턴 설명회’ 참가신청 때부터 감지됐다. 인턴 모집공고가 나자마자 참가신청이 몰리면서 당일 오후 접수가 마감된 것. 마감 사실을 알면서도 “설명회에 참석할 방법이 없겠느냐?”는 지원자들의 문의 e메일이 설명회 당일까지 끊이지 않았다.

설명회에 오지 못한 이들을 위해 채용 홈페이지(recruit.donga.com)에 띄운 설명회 현장 동영상은 게시와 함께 조회 수가 1000건 가까이 치솟았다.

동아미디어그룹 인턴의 출발은 2004년 여름 국내 언론사 최초의 정례 인턴 프로그램인 ‘동아일보 대학생 인턴기자’



6월 29일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2016년 채용연계형 DNA 8기 인턴 설명회’ 현장. 인턴제도 설명과 인턴 출신 선배 기자·PD와의 문답으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는 DNA 인턴에 대한 예비 지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성황을 이뤘다.



수습입사 기자들의 인턴 당시 활약상. 사진은 DNA 7기 출신 기자들의 인턴 시절 활동 모습(위부터 보도본부 김유빈, 편집국 강성휘, 보도본부 박지혜 기자).

다. 현직 기자의 1:1 코칭과 멘토링을 받으며 기사 기획부터 취재, 출고까지 신문 제작과정 전반을 경험할 수 있었던 동아일보 인턴기자 프로그램은 그 존재만으로도 언론계에서 화제가 됐다.

인턴기자들이 졸업반이 되면서 인턴 출신 수습기자 1호가 탄생했다. 2005년 여름 인턴을 했던 임우선 기자(편집국 정책사회부)가 이듬해 1월 수습공채로 동아일보에 입사하면서 인턴기자 입사에 물꼬가 터졌다.

올해 5월 현재 동아미디어그룹을 거쳐간 인턴 기자와 PD는 모두 553명. 이 가운데 기자, PD, 아나운서 등으로 언론사에 입사한 인원은 225명(40.7%)에 이른다. 이 중에서도 52명은 동아일보·채널A의 기자와 채널A PD로 맹활약 중이다.

인턴 활동 종료 후 본사에 입사하지 못한 인턴들의 동아일보와 채널A를 향한 ‘수구초심’이 이어지고 있다. 2012년 여름 인턴을 했던 서형석 기자(편집국 사회부)는 다른 언론사에 입사했다가 올해 4월 경력공채를 통해 ‘연어’처럼 돌아왔다. 서 기자는 “인턴이 쓴 어설픈 기사에도 꼼꼼히 첨삭을 해주던 선배 멘토들의 모습이 생생하다”며 “인턴 때 가졌던 동아에 대한 좋은 기억 덕분에 이직을 결심할 때 길게 고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경력 입사한 신상진 변호사(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2007년 여름 인턴)는 직종을 바꿔 친정에 복귀했다. 신 변호사는 “인턴 기자 경험 덕분에 로스쿨 재학 시절에도 언론 관련 법무에 관심이 많았다”며 “로펌에 입사한 뒤에도

동아미디어그룹 채용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했고, 사내변호사 채용 공고를 보자마자 곧바로 지원서를 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인턴 프로그램은 2011년 채널A 개국을 계기로 국내 최초의 신방 통합 인턴 프로그램으로 거듭났다. 동아일보와 채널A의 영문명을 딴 DNA(Donga & Channel A) 브랜드는 언론사 입사를 준비하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친숙한’ 이름이 됐다. 인턴의 활동 무대가 방송까지 확장되면서 인턴 유형도 D형(신문기자) N형(신문+방송기자) A1형(방송기자) A2형(PD)으로 다양해졌다.

특히 신문기자와 방송기자를 절반씩 경험하는 N형은 신방 통합뉴스룸을 운영하는 동아미디어그룹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희소성 높은 인턴으로 입소문이 나

면서 기자직 인턴 가운데 가장 많은 지원자가 몰리고 있다.

DNA 인턴은 지난해 7기부터 ‘채용연계형’이라는 날개를 달고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됐다. 수습공채에 준하는 강도 높은 과제평가와 멘토평가를 통해 29명 중 12명(41.4%)이 채용전환 트랙과 수습공채 연계 트랙을 거쳐 동아일보·채널A의 수습기자, PD로 입사했다. DNA 인턴이 수습·경력공채와 더불어 동아미디어그룹의 핵심인재 선발 제도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이다.

DNA 인턴은 우수 인재들의 발굴과 육성, 채용이 선순환 하는 명품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다.

경영전략실 인재경영팀 안건우

전통의 동아사이클, ‘투르 드 코리아’로 부활

부산~서울 1229km 대장정 올해부터 동아일보 공동 주최

30년 전통의 ‘동아사이클’이 2016년 ‘투르 드 코리아(TDK)’로 부활했다.

한국 도로 사이클의 상징이었던 동아사이클 대회는 한국 사이클 선수단의 열원과 동아일보의 각별한 애정과 지원으로 1968년 처음 열렸다. 당시 정식 명칭은 ‘제1회 4·19기념 시도대항 전국일주경기대회’로 광화문에서 출발해 전국 각지를 달렸다.

국내에서 전국 일주 대회는 동아사이클이 처음이었다. 당시만 해도 아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회였고, 동아사이클 덕분에 한국은 도로 사이클에서 아시아 최강이 됐다. 일본, 대만 등도 동아사이클을 벤치마킹할 정도였다.

첫 대회에 충남대표로 출전해 단체우승을 차지했던 이암악 대한자전거연맹 법제상발위원장(70)은 “11개 시도에서 4명씩 44명만 나갈 수 있었다. 출전 자체가 영광이라 모든 선수들에게 꿈의 대회였다”고 기억했다.



‘투르 드 코리아 2016’에 참가한 선수들이 6월 12일 서울 올림픽회관 앞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대회가 열릴 때마다 전국을 들쭉이게 했던 동아사이클은 1997년 제30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도로 사정은 해를 거듭할수록 나빠졌고, IMF라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29회 대회가 마지막이 될 뻔 했지만 사이클 관계자들이 나서 “30회는 채워야 한다”며 모금 운동까지 벌여 대회를 한 차례 더 열 수 있었다.

동아사이클에 대한 사이클인들의 열망은 식지 않았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7년 TDK를 출범시켰고, 10회째인

올해 동아일보가 공동 주최자로 참여함으로써 동아사이클의 화려한 부활을 알렸다.

6월 5일 부산 요트경기장을 출발해 12일 서울 올림픽공원까지 8구간에 걸쳐 1229km 대장정을 이어간 TDK 2016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출전한 20개 팀 가운데 프로 폰티넬 팀이 4개나 될 정도로 대회 수준이 높았고, 대회 운영도 흠 잡을 데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편집국 스포츠부 이승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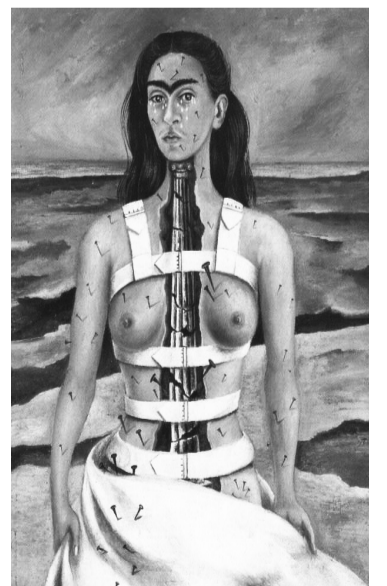
절망 속에서 피어난 천재 화가 ‘프리다 칼로 & 디에고 리베라’ 전

동아일보 주최 전시 예술의전당서 8월말까지

라틴아메리카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프리다 칼로(1907-1954)와 남편 디에고 리베라(1886-1957)의 걸작을 선보이는 ‘프리다 칼로 & 디에고 리베라’전이 동아일보 주최로 5월 28일부터 8월 28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열린다.

프리다 칼로는 소아마비와 교통사고, 남편의 복잡한 사생활 등 자신이 겪었던 극한의 고통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 남편 디에고 리베라는 멕시코를 대표하는 천재 화가로 멕시코 전통 신화와 역사, 민중의 삶을 벽화로 남긴 화가로 유명하다.

이번 전시에는 멕시코의 국보급 소장품인 프리다 칼로의 첫 자화상 ‘벨벳 드레스를 입은 자화상’, ‘부러진 척추’ 등을 비롯해 프리다 칼로의 대표작 34점과 디에고 리베라의 대표작 30점 의



극한의 고통을 자화상으로 표현한 프리다 칼로의 대표작 ‘부러진 척추’(1944년).

일상을 담은 사진, 의상 등 총 150여 점이 전시된다.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은 휴관.

편집국 문화부 이서현

텍스트+동영상 융합 플랫폼과 스마트한 제휴 언론 기업의 미래를 연다

2016 세계편집인포럼 및 국제뉴스미디어협회 총회 열려 전 세계 미디어 전문가들이 내다 본 언론사의 혁신 전략

세계 미디어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디어 산업의 미래와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5, 6월 잇따라 마련됐다. 5월 22일부터 사흘간 영국 런던에서는 2016년 국제뉴스미디어협회(INMA) 총회가 열렸고, 6월 12일에는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2016년 세계편집인포럼 및 세계뉴스미디어총회(WEF)가 개최됐다. INMA와 WEF에 직접 참가한 기자들이 미디어 기업의 생존 전략을 다양한 키워드로 정리했다.

INMA 총회에서 강조된 5가지 트렌드

브랜드 콘텐츠의 성장 '5와 100'

뉴욕타임즈의 브랜드 콘텐츠(미디어 기업들이 생산하는 다양한 콘텐츠에 기업의 브랜드를 얹는 새로운 형태의 홍보) 제작 자회사 'T 브랜드 스튜디오'의 2014년 출범 당시와 현재 광고주 수를 나타내는 숫자다. 5개에 불과했던 광고주가 2년 만에 20배인 100개로 늘어난 것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디어 업계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브랜드 콘텐츠가 미디어 기업 수익에 효과 노릇을 하고 있다. 가디언의 브랜드 콘텐츠를 제작하는 전문 자회사인 '가디언랩'이 가디언 전체 매출의 10%를 책임질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브랜드 콘텐츠 시장이 커지면서 광고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미디어 기업의 경쟁과 노력도 치열하다. 가디언랩은 고품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IT 개발자 등 기술 인력이 콘텐츠 편집자, 애니메이터 등과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오디언스 익스플로러(Audience Explorer)'를 개발해 브랜드 콘텐츠를 실제 누가 봤는지 등을 분석한 자료를 광고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다.

'두려운 5인방(scary 5)'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 트위터, 애플, 스냅챗 등은 미디어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미디어 기업들과 콘텐츠 제휴 계약을 맺고 이미 미디어 산업의 주요 '행위자'로 자리 잡았다. 이번 총회에서 이들 5개 기업을 '두려운 5인방(scary 5)'으로 부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총회장에서는 미디어 기업을 향한 구글의 '구애'가 눈길을 끌었다. 구글은 회의장 앞 로비에 가장 큰 규모의 홍보 부스를 설치했다.

총회 사전 세미나로 검색, 지도, 유튜브 서비스 이용 다양한 보도 사례도 선보였다. 미디어 기업들이 콘텐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최적 협력 파트너가 구글이란 점을 알리기 위해서다.

플랫폼과 스마트하게 손잡는 법

미국의 신생 매체 '보이스 미디어(Vox Media)'는 미디어 기업이 '두려운 5인방'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보이스 미디어'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텀블러 등 다양한 플랫폼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미디어업계 선두주자로 꼽힌다. 각각의 플랫폼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만들어 플랫폼에 상관없이 소비자들이 '보이스 미디어' 브랜드 콘텐



5월 22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2016 국제뉴스미디어협회(INMA) 총회에서 참석자들이 미디어 기업의 데이터 활용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츠를 찾도록 한 것이다.

브랜드를 각인시키기 위해 복스미디어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독자'에 둔다. 독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를 플랫폼에 관계없이 가장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포인트다.

페이스북에 콘텐츠를 게시할 때는 초반 3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상 중심으로 콘텐츠를 재구성한다. 주로 사진물 게재가 많은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콘텐츠는 이미지에 공을 들인다.

조나단 헛트 부사장은 "지금 시대에 중요한 것은 플랫폼이 아니라 브랜드"라며 "좋은 품질의 콘텐츠를 통해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낸다면 소비자들은 플랫폼이 아닌 브랜드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사의 동영상 활용법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신문사이지만 동영상 제작에 적극적이다. 웹과 모바일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기사에 '소리가 없는' 짧은 동영상들이 포함돼 있다. 텍스트 기사와 함께 현장을 보여주는 짧은 동영상을 게재해 기사의 깊이와 현장성을 강화한 것이다.

독자에 대한 배려도 담았다. 텍스트 기사만을 기대하고 사이트를 열었다가 느닷없이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동영상

재생될 경우 놀라거나 당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워싱턴포스트 기사에 삽입된 모든 동영상은 '무음'으로 처리됐다.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인터뷰를 페이스북을 통해 생방송을 하기도 했다.

새로운 유료화 실험

영국 '가디언'이 시도하는 수익 모델은 독특하다. 많은 언론사들이 광고의 다각화와 기사의 유료화 등을 고민하고 있을 때 가디언은 '멤버십'을 내세워 독자들에게 특별한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방식을 택했다.

가디언은 충성도 높은 독자들에게 고 품질의 강연과 토론회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유료 멤버십'을 판매했다.

가디언의 멤버십은 △가디언의 라이브 이벤트 티켓을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렌드'(무료)와 △이벤트 참여 기회와 기념품을 증정하는 '서포터'(월 5파운드) △무료 이벤트 티켓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파트너'(월 15파운드) △독점 이벤트에 초청받을 수 있는 '후원자'(월 60파운드)로 구분된다. 가디언은 올해 1분기까지 약 9만 명의 멤버십을 유치했다. 특정 기사와 현안에 대해 직접 토론을 하거나 유명 인사를 패널로 섭외해 사회·정치적 쟁점에 대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벤트 주제도 미술, 요리, 스포츠, 문학 등 다양하다.

런던(영국)=편집국 문화부 이서현



영국 가디언이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주최한 강연회의 모습. 가디언은 '멤버십' 제도를 통해 독자들이 뉴스 이슈에 직접 참여하는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WEF에 소개된 뉴스룸의 진화 '기자-개발자-디자이너'... 차세대의 대세는 '통합뉴스룸'이다



아르헨티나 유력지인 '라 나시오'의 통합뉴스룸. 협업이 중요한 부서는 원형 구조로 배치하고, 비디오뉴스 강화 전략에 따라 간이 스튜디오를 마련한 게 특징이다. 카를로스 기요 편집국장은 "협업을 위해 뉴스룸의 '보이지 않는' 벽을 없애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6월 12일부터 사흘간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열린 2016년 세계편집인포럼 및 세계뉴스미디어총회에서 각 세션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한 단어는 뉴스룸이었다.

정보기술(IT)의 활용과 플랫폼의 선택도 중요한 문제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이며, 콘텐츠 생산의 엔진은 뉴스룸이기 때문이다. '차세대 뉴스룸'의 구체적인 사례도 여럿 소개됐다. 일관된 흐름이 있다면 뉴스룸이 더 이상 '기자들만의 공간'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점이다. 뉴스룸 내부와 외부의 장벽을 허물면서 협업을 고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매트 머레이 월스트리트저널(WSJ) 부국장은 "뉴스룸에 20명 이상의 정보 기술(IT) 개발자와 디자이너를 상주시키고 있다"며 "이들은 모바일에서 종이

신문에 이르기까지 뉴스 소비를 최적화하는 기술적, 디자인적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WSJ는 10년간 뉴스룸을 혁신하면서 저녁 7시에 신문을 발간하고, 아침 7시에 모바일 뉴스를 업데이트하는 쪽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프린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두 가지 포맷 사이의 조화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마케팅 전문가 10명을 뉴스룸에서 기자들과 협업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마케팅 전문가들은 △실시간 뉴스 소비 성향을 분석하고 △중요이슈에서 소셜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플랫폼에서 잠재 독자를 추가로 찾아내며 △FT 기사가 '타겟 독자'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차세대 뉴스룸의 대세는 통합뉴스룸이라는 데 이견은 없었다. 다만 뉴스 생산 조직과 인력을 모아놓은 뉴스룸(Integrated Newsroom)에서 나아가 미디어 수용자가 원하는 형식의 콘텐츠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뉴스룸(Transmedia Newsroom)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게 총회의 결론이자 제안이었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5년간 통합뉴스룸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1월 신방 겸직 조직이면서 동아닷컴 인력까지 합류한 디지털통합뉴스센터를 신설했다.

텍스트와 비디오 콘텐츠를 활용해 다양한 플랫폼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경험과 역량을 축적하면서 트랜스미디어 뉴스룸에 성큼 다가가고 있는 셈이다.

카르타헤나(콜롬비아)=경영전략실 인재경영팀 차지환

아재 감성 누아르 '아빠본색' 7월 첫 방송... 터프男 찬밥일상 대공개

김구라-김영호-이창훈 출연 가장으로서의 삶 드러내 보여

독설예능의 신(神) 김구라가 아들 MC그리 김동현과의 일상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7월 방송되는 채널A 신규 예능 프로그램 '아재감성누아르' '아빠본색'에서 부자의 민낯을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

'아빠본색'은 아빠가 된 아재들의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관찰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밖에서는 당당하지만 자식들 앞에서는 '자식바보'가 되는 대한민국 아빠들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긴다. 김구라와 함께 배우 김영호, 이창훈도 '아빠'로 출연한다.

늘 자신 있고 당당한 모습이 트레이드마크인 김구라는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아들 말이라면 무조건 듣고 따르는 아들 바라기의 모습을 보여 제작진을 놀라게 했다. 아들에게 아침식사를 차려주기 위

해 즉석밥을 전자렌지에 넣고 돌리는 모습에서 찡찡마져 느껴진다.

자타공인 연예계 상남자인 배우 김영호는 세 딸 별, 솔, 강과의 일상을 보여준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줬던 강하고 마초적인 김영호는 간데없고, 딸들에게 충성하는 아빠 김영호의 반전 모습이 공개된다.

왕년의 톱스타 이창훈은 전업주부로 시청자를 만난다. 이창훈은 심은하, 고소영, 김희선 등 당대의 스타와 로맨스의 주인공으로 활약했지만 지금은 특별한 일(?)이 없는 백수 아빠다.

가족의 아침식사 준비, 딸 효주의 등 하교까지 책임지는 프로 주부 이창훈의 고군분투 모습이 관전 포인트다.

박경식 피디는 "방송가를 종횡무진하는 인기스타도 집안에서는 찬밥 신세가 될 수 있다"며 "아빠본색을 통해 시청자들이 고달픈 가정들의 모습에 공감하고, 나의 아빠, 나의 남편을 격려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빠본색'은 7월 초에 방송된다.

경영전략실 브랜드마케팅팀 오지연



6월 17일에 진행된 채널A 신규 예능 프로그램 '아빠본색' 티저 촬영현장에서 출연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훈, 김구라, 김영호.

걸그룹 I.O.I, 개밥남 출연해 유기견 돌보미 변신

"우리는 개밥 주는 소녀들"

걸그룹 아이오아이(I.O.I)가 '개밥 주는 남자(개밥남)'에 출연한다.

I.O.I 멤버 김도연, 김소혜, 김청하, 임나영, 전소미, 주결경, 최유정 등 7명은 '개밥남'에서 유기견을 돌본다. 숙소에서 유기견과 함께 생활하며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는 컨셉이다.

I.O.I는 11명이 모두 참여하는 '완전체'와 김세정, 강미나, 정채연, 유연정이 빠진 '유닛' 등 2가지 형태로 활동할 예정이다. 현재 I.O.I는 7명 '유닛'으로 활동 중이며, 7명이 같은 숙소에서 지내고 있다.

6월 11일 진행된 첫 촬영에서 3개월 된 강아지 세 마리(밀크, 버블, 티티)는 I.O.I 멤버들과 상견례를 했다. 전소미는 인터뷰에서 "강아지를 키울 수 있다면 유기견을 키우고 싶었다. 세 마리 강아지가 새 주인을 만날 때까지 많은 사랑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밤비'라는 푸들을 키우고 있는 김청하는 "과거 우울했던 시절을 반려견을 통해 극복했다"고 고백하며 강아지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I.O.I가 출연하는 '개밥 주는 남자'는 7월 8일 방



7월부터 '개밥 주는 남자'에 출연하는 인기 걸그룹 I.O.I 멤버들이 채널A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김소혜, 김청하, 최유정, 전소미, 주결경, 임나영, 김도연.

송된다.

'개밥남' 1회부터 등장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주병진과 반려견 웰시코기 삼둥이 대·중·소는 5월 29일 'SK 와이번스 도그데이'를 맞아 프로야구 시구에 나섰다. '와이번스 도그데이'는 국내 프로 스포츠로는 유일하게 반려견과 야구를 볼 수 있는 행사다.

첫 애완견 동반 시구에 참여한 주병진과 대·중·소는 관객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대중소는 생애 처음으로 짧은 다리 워킹을 선보이며 야구경기장 마운드에 올랐다. 주병진은 DJ DOC 김창렬과 맹연습을 한 덕분에 시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경영전략실 브랜드마케팅팀 오지연

본사 中역직구 쇼핑몰 한류스타일닷컴 중국인 대상 단오절 행사 성황리 개최

다유넷에서 운영하는 역직구 인터넷쇼핑몰 '한류스타일닷컴(HAN6STYLE.COM)'이 6월 11일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 오픈스튜디오 앞 광장에서 '중국 단오절 맞이 할인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기 국산화장품과 패션의류가 최대 반값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돼 중국인 관광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한류스타일닷컴은 네이버 스토어

팜, G마켓 등 온라인 판로를 통해 국내의 소비자들을 만나고 있다. 또한 중국 남경 요이백화점 한국관과 소주의 '명동'으로 불리는 관전가(觀前街)의 의류매장에도 입점해 패션의류를 판매하고 있다.

한류스타일닷컴은 8월 중국 안휘성 국제전시장에 100평 규모의 한국관을 개설해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설 예정이다. 다유넷 콘텐츠커머스팀 서준용



6월 11일 한류스타일닷컴이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 앞 광장에서 주최한 '중국인 대상 단오절맞이 행사'. 지나가던 관광객이 패션의류를 살펴보고 있다.

東友는 몸신이다

상·하체 셀룰라이트 분해 체조

울룩불룩한 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 셀룰라이트는 순환장애로 인해 과도한 체액과 지방이 피하부에 쌓여 생긴 염증입니다. 셀룰라이트의 지방세포들은 잘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생긴 셀룰라이트를 없애는 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셀룰라이트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셀룰라이트가 생긴 부위는 꾸준히 마사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셀룰라이트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같은 자세로 오래 서있거나 앉아있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오래 앉아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틈틈이 일어나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자주 자세를 바꿔 주는 것이 좋습니다. 셀룰라이트 분해 체조는 특정한 자세를 유지한 뒤 셀룰라이트가 있는 부분을 압박 말듯 말아주면 되는 손쉬운 건강법입니다. 하루 10분씩 꾸준히 마사지하면 셀룰라이트가 눈에 띄게 제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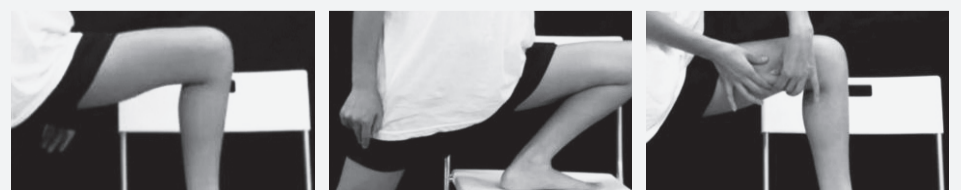
동영상을 통해 보다 자세한 운동법을 익히려면 프로그램 홈페이지(tv.ichannela.com/enter/bodygod/concept)를 활용하면 됩니다. 경영전략실 브랜드마케팅팀 이선정

1. 팔뚝



① 팔에 힘을 준 상태에서 팔의 안쪽살을 잡아 바깥쪽으로 말아 준다. ② 팔뚝의 늘어진 부분을 집게처럼 잡고 최대한 아래로 쭉 늘린다. ③ 거드랑이 주변 부분을 주먹으로 가볍게 두드린다.

2. 허벅지



④ 의자에 한쪽 다리를 올려 무릎과 일직선을 만든다. ⑤ 무릎을 굽히면서 10초간 허벅지 안쪽을 늘려준다. ⑥ 무릎을 펴고 허벅지 안쪽부터 지방과 셀룰라이트를 잡아 말아준다.